

소망교도소 개청 15주년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으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 5일 개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가 설립한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5일부터 7일까지 ‘세상의 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Light of the World: Faith-based Restorative Corrections)’을 주제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진행한다. 5일 서울 강동구 글로벌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개회예배, 개회식, 학술대회, 폐회식 순서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상의 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민영교도소, 회복적 정의, 교회 프로그램, 회복적 교정 운동을 다루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교도소 선교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이 경험과 통찰을 나누며, 미래 전망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대회를 전한 김삼환 목사(재)아가페 이사장은 “재단법인 아가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교정의 패러다임을 회복과 화해로 전환시키는 사명을 감

당하고자 한다. 신앙에 기반한 민영 교정 모델은 단순한 제도적 실험을 넘어,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 비전이 더욱 선명해지고, 각국의 교정 사역에 새로운 길이 열리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은 “아가페 정신으로 진정한 교회, 신앙을 통한 교회,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소망교도소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요한 의원(국민의미래 국회의원, 선교사 4대 후손)은 “오늘날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소망교도소가 그동안 보여준 15년간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소망교도소의 걸어온 길은 놀라운 성과”라며, 행사 진행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격려사를 전한 이기수 총장(제17대 고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 참석자 단체 사진. ©정지동 기자

려대학교)은 “이번 행사는 신앙이 교정의 현장에서 어떤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살아 있는 증거를 통해 세계가 함께 공감하는 자리”라며 “교정의 목적은 회복이며, 교회의 힘은 사랑에 있다. 소망교도소가 법과 신앙, 제도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 비영리 조직들이 세계 변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생 목사(KNCKC 총무)는 “소망교도

소의 시작은 새로운 형태의 교정 시설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다시 설 수 있는 자유이다. 곧 회개와 용서 그리고 새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망교도소의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일깨우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소망교도소의 다음 15년이 더 깊은 사랑과 더 넓은 회복의 역사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삼환 목사가 대회를 전하고 있다. ©정지동 기자

‘K-팝에서 K-교도소’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로버트 맥크리 교수(뉴욕 시립대학교 형사법학)는 “소망은 비록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인간 안에 내재한 선함을 믿는 기관이다. 그곳에서 수용자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는다. 행정책임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들은 수용자들을 실제로 돌보고 배려한다. 그 결과 범죄 없는 미래와 진사회적 선택이 더 가까워지고,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열린다”고 했다.

또한 “소망의 밤재율은 0이 아니지만, 유사 교정시설의 절반 미만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결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며 “소망은 윤리로 충만하고 예술과 음악, 그리고 기회로 가득하며, 영성이 스며든 기관이다. 그러나 소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 K-교도소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그저 허황된 꿈에 그쳤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부와 자원봉사, 기도 그리고 씬 없는 헌신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아가페재단은 교정 활동에 독창적이고도 중대한 기여를 해왔다. 학술대회가 그 소식을 널리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바이런 존슨 교수(메릴랜드 학교 범죄학과) 하워드 제어 전문가(회복적 사법개혁자)가 영상을 통해 축하했다.

이아진 감사대 증정식에서는 앤드류 콜리 대표(국제교도협회(IFI) 대표)가 김삼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삼환 목사는 “이 상은 한국교회 모든 분들의 기도와 후원, 사랑과 헌신의 결과이다. 여러분께 이 상을 바치겠다”고 전했다.

행사는 최창의 장로(재)아가페 사무총장)의 광고, 권태진 목사(재)아가페 이사, 예상 합선 증경총회)의 폐회기도 순서로 개회식은 마무리됐다. 정지동 기자

‘1인 시위’ 이재훈 목사 “약물 낙태는 국가적 자살행위”

5일 국회 앞에서 경고… “태아는 헌법상 생명 주체”

한국교회 지도자들, ‘낙태 자유화 및 약물 낙태 도입 반대’ 1인 시위
국회 앞서 항후 4개월간 릴레이 시위, 김운성·한기재 목사 동참 예정
이재훈 목사 “진정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생명 보호 의무 포함”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된 ‘약물 낙태 허용’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가 첫 주자로 나서 “생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약물 낙태는 국가적 자살 행위”라고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목사의 시위를 시작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 지도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4개월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다음 주 김운성 영락교회 담임목사에 이어 한기재 목사(전 기성 총회장) 등이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한국교회 차원에서 ‘백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 계획이고, 현대약품 본사 앞 피켓시위도 예고했다.

이재훈 목사는 이번 시위의 취지를 설명하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태아를 헌법상 생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약물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것은 신앙과 양심, 도덕 질서에 어긋난 행위이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목사는 또한 “유럽과 북미에서 약물 낙태가 초래한 부작용이 이미 심각하게 드러났다”며 “통계적으로 약물 낙태 후 70%가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보고도 있다. 단순하고 안전하다는 제약업체의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이재훈 목사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약물 낙태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간담회 당시 배석해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브리핑한 제약규 한동대학교 교수는 “약물 낙태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줄 수 있다”며 “2018년과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낙태 여성의 9%가 약물 낙태를 시도했으며, 이 중 70%가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낙태의 위험성을 정은경 장관에게 전달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재훈 목사는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측이 내세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논리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은 생명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결정권”이라며 “태아 6주에 심장박동이 나타나고 22주에는 단독 생존이 가능한데, 이를 단순한 세포로 치부해 낙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진정한 자기결정권에는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포함돼 있다”며 “낙태 대신 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목사는 이번 운동의 배경을 묻은 질문에 “약물 낙태 합법화 움직임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알리지 않으면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침묵하면 생명경시 풍조가 사회 전반에 퍼질 것”이라며 “태아가 사회의 약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현재 입법 공백 상태인 형법상 낙태죄 관련 법안 발의 상황을 전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해당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며 “대략 태아



이재훈 목사가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노형구 기자

10주까지 낙태 허용을 골자로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태아 역시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라며 “모든 생명이 보호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떤 여성도 낙태하기 위해 임신하지 않는다”며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진정으로 지키려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적 출산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창화 한국임양선교회 대표는 “교회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치지 않고, 태어난 아이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임양가족과 교회가 연대해 자커진 생명을 함께 양육하는 문화가 확산할 때, 위기 임신부들이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항후 4개월간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전국 교회에 생명존중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재훈 목사는 “이 일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한 신앙적 책임의 표현”이라며 “한국교회가 시대적 양심으로 일어나 태아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2025-2026
강원 방문이 해
VISIT GANGWON YEAR

철원
CheorWon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1억년, 신비의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협곡
다채로운 바위 순담계곡 절벽과 허공 사이를 걷는 아찔한 잔도

철원군
Cheorwon

햇불전망대

찰리 커크의 멘토 목사, 다민족 기도회서 “부흥, 기도의 토양 위에 피어나”

2025 다민족연합기도회 Multi Ethnic Prayer Gathering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코네티컷 플라이머스 항에 도착한 지 약 100년이 지나지 않아, 초기 정착자들은 종교에 잠자 무관심해졌다. 성직자들조차 여우 사냥, 경마, 플랜테이션 주인들의 초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청교도주의는 점차 유럽으로부터 들어온 계몽주의와 이신론으로 대체되었고, 교회 출석은 사교모임이 되었다.

1703년, 존 웨슬리가 세상에 나온 그해, 코네티컷주 이스트 윈저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났다.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아이는 훗날 제1차 대각성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였다.

에드워즈는 17세에 예일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타드(Solomon Stoddard)를 이어 노스 햄프턴 교회(Northampton Church)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부임 약 8년 후, 그가 설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참된 길'(Justification by Faith Alone, 1734)을 통해 300명 이상이 회심하고, 마을 전체로 영적 각성이 퍼져나갔다.

다민족기도운동에 따르면, 제1차 대각성운동이 미국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으며, 미국은 이 기독교적 정신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이다.

대각성운동의 불씨는 거기서 꺼지지 않았다.

그 영향은 제2차 대각성운동(1787-1875)으로 이어졌고, 이어 건초터미 기도모임(1806)과 평신도 정오 기도운동(Laymen-centered Noon Prayer Movement)을 일으켰다.

또한 제3차 대각성운동(D. L. Moody, 1871-1899)과 학생선교지원운동(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1888-1940),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1906)으로 이어지며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이후 4차 대각성운동(빌리 그라함, 1949)과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1952), 예수 운동(1970) 등으로 그 부흥의 불씨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를 중심으로 파사데나의 로즈볼 경기장에서 다민족 연합 기도 대회가 열린 이래 매년 다민족이 연합해 교회의 회개와 미국의 부흥을 위해 매년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다민족연합기도회는 “회개, 부흥, 회복”을 주제로, 11월 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많은 다민족 영적 지도자들과 기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다.

GMI, 뉴비기닝 연합찬양팀, 찰리 커크의 타네포인트USA의 Faith 의장인 랍 맥코이(Rob McCoy) 목사, 스티븐 데이비스(Steven Davis) 목사, 뉴비기닝교회(New Beginning Church)의 길버트 자라고자(Gilbert Zaragoza) 목사, 하베스트 타임 인터내셔널(Harvest Time International)의 마누엘 산틸라노(Manuel Santillano) 목사, 엘머 잭슨(Elmer Jackson) 목사, 로버트 울프(Robert Wolff) 랍비, 펑저 바이(Fengzhe Bai) 중국인교회 목사, 조나스 무요(Jonas Muljo)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지도자들이 각 기도회 순서에 참여해 도전을 전하고 연합의 불꽃을 뒀다.

제1부 경배와 환영에서는 GMI와 뉴비기닝 연합 찬양팀이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각각 홀리 포에버와 Holy CUAN GRANDE ES EL(주안 그란데 에스 엘 How Great Art Thou 스페인어 찬양)을 불렀다.

올해도 양각나팔(Shofar)을 부는 세레모니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고, 한기홍 목사의 환영 인사와 타네포인트USA 랍 맥코이(Rob McCoy) 목사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랍 맥코이 목사는 “부흥을 통해 문화가 바뀌고, 대학이 세워지고, 교육 시스템이 세워졌다”며, “미국 초기 리더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들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초기에 아이들은 십계명을 외워야 했고, 하나님의 도덕법은 입법 건물에 다 적혀 있었고, 아이들은 그 도덕법을 배우며 자랐고, 정치 리더들은 그 법을 알아야 했으나, 지금은 누가 십계명을 외울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 및 교회 압수 수색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에 대해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와 상관 없이 복음만 전한다는 태도는 영지주의의 한 형태”라며, “복음이라는 말 뒤에 숨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서 1960년, 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문제에 침묵하는 교회에 실망해 교회를 떠나고, 동양의 종교에 빠져 들고, 캘리포니아에서 마약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던 때,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다민족 기도회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기도하는 교계 지도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전했던 척 스미스 목사의 예수 운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갈보리교회의 뿌리인 기도 한 예수 운동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예수 운동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개종자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서 캘리포니아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후 캘리포니아를 뒤덮은 영적 가뭄, 재정적 부채, 가정의 파괴와 트랜스젠더, 낙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는 “찰리 커크는 젊은 세대들에게 외쳤다. 그들은 가장 중독에 강하고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은 세대고 가장 자신을 많이하는 세대”라며, “사랑받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 선교사”라고 말했다. “찰리 커크가 있는 곳에 수많은 시위 세력들도 있었다. 찰리가 죽을 당하기 전에 정말 수많은 하나님을 반응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곳에 있었다”며, 이것을 “제자도의 부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최근 미국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며, 아칸소대학교 1

말했다.

2부 행사로 진행된 기도회는 총 5개 파트로 구성됐다. 회개를 위해 신승훈 목사, 부흥과 회복을 위해 데이비드 디아즈 목사(공동대회장),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김민아 대표(빌드업 코리아), 미국의 리더십을 위해 고태형 목사(공동대회장), 기도 가 필요한 나라들을 위해 볼프강 코바첵(Wolfgang Kovacek, Pray California)가 각각 기도하고 각 소순서로 다양한 한인 및 다민족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신승훈 목사는 “미국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국가였다”며, “신앙을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와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먼저 세운 자들의 나라였다”고 말했다.

“미국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나라였다. 신앙을 기반으로 나라를 세웠다. 공적 문사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적었고 수정헌법 1조에는 의회는 종교를 제정하는 법률이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성경적 가치에 기초해 사회를 세웠다.”

그는 “미국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금지법을 만들고 여성과 어린이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적 윤리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으나, 오늘날 인권, 다양성 이란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가르치

며, 학생인권법 학생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민아 대표(빌드업 코리아 대표)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진리가 공격 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다음 세대가 깨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의 전쟁 한가운데 서 있다. 이 전쟁은 교실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위한 한 문장에서 시작되어, 유튜브 알고리즘, 틱톡, 넷플릭스의 장면 속에서, 거짓이 찬양받고 진리가 조롱받는 미디어 속에서 이어진다. 또한 법과 제도 안에서도 이어진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시 한번 군대를 일으키며, 잠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

이날 기도회는 이창남 목사(공동준비위원장)의 감사 및 알렐루,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번 기도회는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하고, 은혜한인교회, JAMA, OC교회, 남가주교회, 성서화운동본부,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남가주 여러 교회들, 미주복음방송 및 크리스천 언론사, 각 지역 교회협의회, 목사회, 여성목사회가 후원했다. LA=주디 한, 토마스 맹 기자

교회 안 다니는 미국인 4명 중 3명은 과거 다닌 경험

목데연, 약 10년 전 라이브웨이리서치 조사 결과 소개

매주 ‘넘버즈(numbers)’라는 이름으로 교회 관련 주요 통계자료를 소개하고 있는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가 미국에서 약 10년 전 있었던 라이브웨이리서치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Unchurched Report, 2016)이라는 조사의 주요 결과를 4일 소개했다.

목데연은 “비록 조사 시점은 오래되었으나 오늘 교회가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주제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상태에 있는가’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넘버즈에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결과를 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인식하는 이들 중 63%는 ‘비실전적·비독실 신앙’ 범주에 속했다. 언처치드(Unchurched,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3명 중 2명 가까이 기독교 정체성은 유지하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룹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언처치드 4명 중 3명(75%)은 과거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처치드 그룹이 처음부터 교회 밖에만 있었던 집단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목데연은 덧붙였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언처치드 10명 중 7명은 ‘모든 사

람의 삶에는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더 깊은 목적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둔 이들이 57%에 달했다.

목데연은 “이와 같은 데이터는 언처치드가 교회 혹은 종교 외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한 스스로의 탐색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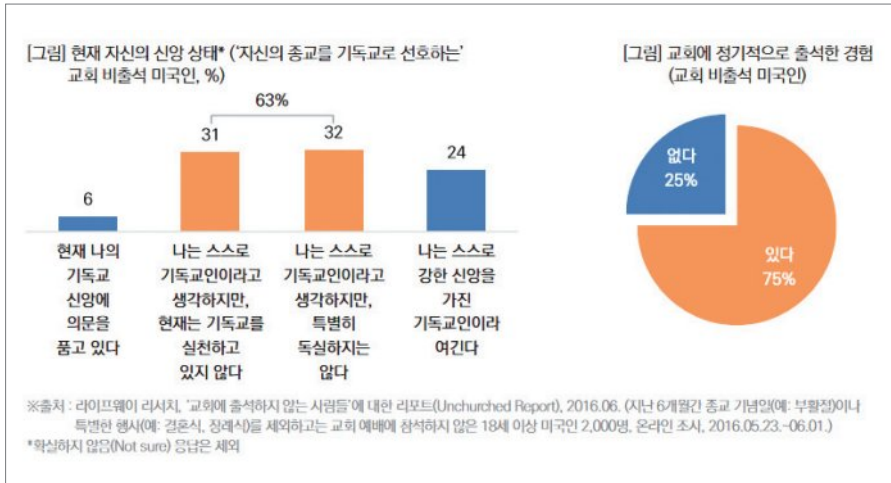
종교에 대한 대화 요청을 받았을 때, 언처치드의 절반가량(47%)은 ‘자유롭게 토론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31%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듣기는 한다’고 답했다. 이에 목데연은 “전체적으로 수용적 태도가 회피보다는 우세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언처치드가 반응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신앙적 대화에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할 가능성을 묻는 결과, 언처치드 3명 중 1명꼴인 33%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목데연은 “이는 교회의 꾸준한 관계 맺기와 초대가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다만, 응답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해, 교회 출석에 대한 거부감과 무관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김진영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한국VOM “북한 사역 재정비” 촉구하며 성경 3만2천 권 발송



순교자의 소리의 복음 중심 사역의 일환으로, 탈북민들이 존 로스 성경 히브리서 2장을 현대어로 번역하고 있다. ©한국VOM

한국순교자의소리(대표 현숙 폴리, 한국VOM)가 최근 북한 사역의 '재정비'를 촉구하며 전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존 로스 누가복음 성경 3만2천 권을 발송했다고 최근 전했다.

이 단체는 매년 평균 3만 권의 성경을 북한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우편 발송은 “북한 및 탈북민 사역을 복음 중심으로 다시 세우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숙 폴리 대표는 “많은 교회가 탈북민을 돕는 데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지만, 진정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는 일”이라며, “25년간의 북한 사역 경험을 통해 한국 교회가 복음 중심 사역으로 전환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VOM은 이번 성경 발송과 함께

전국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공지했다.

훈련은 ▲대전 사무실(11월 13일) ▲서울 사무실(11월 27일) ▲부산 사무실(12월 4일)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전화(02-2065-0703)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번 훈련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실습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탈북민과 함께 성경 개정 작업에 참여하며 복음 사역의 실재를 체험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송된 누가복음은 19세기 말 선교사 존 로스가 번역한 최초의 한글 신약성경을 현대어로 개정한 일부다. 현숙 폴리 대표는 “존 로스 성경은 평안도 방언으로 번역돼 탈북민이 언어적 감각을 가장 잘 이해한다”며 “남한 목회자와 탈북민이 함께 문법적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VOM은 2026년까지 탈북민들이 현대어로 개정한 4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출간하고, 2027년에는 존 로스 신약성경 전체를 완간할 계획이다.

현숙 폴리 대표는 “존 로스 성경은 조선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통로였다”며, “이 번역본은 남북한 모든 기독교인이 함께 읽어야 할 성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남한 목회자들이 탈북민과 함께 복음의 본질을 돌아가길 바란다”며 “양육하는 목회자와 양육받는 탈북민 모두가 다시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국VOM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및 탈북민 사역 관련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 참여 문의도 노형구 기자

인도 대법원, ‘강제 개종’ 허위 혐의 벗겨… 기독교인들 3년 만에 무죄 판결

우타르프라데시주 목회자와 병원 직원 등 무고 확인… “형사법, 무고한 이들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해선 안 돼”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내셔널CDI)은 인도 대법원이 허위 개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든 형사 절차를 전면 무효화했다고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인도 내 '강제 개종' 법이 소수 종교인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나온 중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피해자들에게 3년 만에 법적 정의가 실현됐다.

지난 10월 17일, 대법원 판사 J.B. 파르 디왈라와 마노스 미스라가 공동으로 작성한 158쪽 분량의 판결문은, 2022년 4월 이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강제 개종' 혐의로 기소된 목회자 비자이 마시(Vijay Masih) 목사, 브로드웰 기독교 병원 직원, 샘 하긴보텀 농업기술과학대학(SHUATS) 관계자 등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진 모든 형사 사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법이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를 납발하는 것은 정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2022년부터 등록된 사건번호 224/2022, 47/2023, 54/2023, 55/2023, 60/2023 등 모든 사건과 관련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4년간 부당한 혐의에 맞서 싸워온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법적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 사건은 2022년 4월 14일 '세족목요일(Maundy Thursday)'에 시작됐다. 힌두 극우단체 비슈와 힌두 파리스아드(VHP) 소속 인사들이 파테푸르(Fatehpur) 지역의 복음교회 예배당을 포위하고 경찰을 불러, 90명의 힌두교인이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마시 목사를 비롯해 35명의 신자를 체포했으며, 일부는 100일 넘게 구금되었다.

대법원은 당시의 제1보고서(FIR)가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VHP 간부로, 기존 법률에 따라 개종 사건의 고발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이후 등록된 4건의 추가 고발서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발자들의 진술이 '복사된 듯 동일한 문구'로 작성되어 있었고, 서류의 전자 날짜도 거의 동일한 시각으로 찍혀 있어 “기계적으로 조작된 증거”라고

판시했다.

한 사례에서는 두 명의 고발인이 자신의 이름을 잘못된 인물명으로 기재했으며, 일부 진술은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라 주장한 이들이 이전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VHP 회원이라고 진술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다수의 고발이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68명의 기독교인이 누명을 썼으며, 이 중에는 11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5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17세 청소년의 나이를 23세로 조작해 구금하기도 했다. 한 소녀는 체포를 피해 한밤중에 급히 피신해야 했다.

브로드웰 기독교 병원 선임 행정관 제이 메린(J. Merin)은 “57명의 병원 직원이 직장을 잃거나 타 지역으로 강제 전출됐다”며 “병원 운영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이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서 환자 수가 하루 50명에서 7명 이하로 급감했고, 수입도 급격히 줄었다.

복음교회 인도연합회(ECI)의 총무 에드윈 웨슬리(Edwin Wesley) 목사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기독교인을 겨냥한 조직적 공격이었다”며 “많은 교인들이 직장을 잃고,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이 네 차례나 조사했지만, '힌두교인 90명이 개종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단 한 명의 증인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독립교회를 이끄는 조세 프라카시 조지(Pastor Jose Prakash George) 목사는 2023년 2월 체포되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져 감사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수사당국의 자료와 증거 수집 방식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5조의 정신에 비추어, 헌행 '강제 개종 금지법'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웨슬리 목사는 “이 사건은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체계적으로 표적이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즉 예배하고 전파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미얀마 기독교인, 교회 파괴와 성직자 살해 속 점점 심화되는 박해

군부, 기독교인과 소수종교에 대한 탄압 강화… “국제사회, 신앙자유 수호 위해 즉각 행동해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미얀마 군부가 기독교인과 기타 소수종교 공동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긴급한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기독교 인권단체 크리스천 솔리더리티 월드와이드(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이하 CSW)는 최근 발표를 통해 “군사정권의 종교 박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CSW와 종교자유연대(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Network, FoRB)에 따르면,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의도적으로 220개 이상의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포격고문 등을 통해 최소 85명의 성직자를 살해했다. 특히 기독교인이 다수 거주하는 친(Chin) 주가 군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교회와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다.

CSW는 이를 ‘초토화 전략(scorched-earth strategy)’이라고 규정하며, 군부가 예배당을 파괴할 뿐 아니라 약탈하고, 인근에 지뢰를 설치하며, 심지어 교회

를 임시 병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교회 모임이 금지됐으며, 신자들은 경찰에 예배 일정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CT는 박해는 기독교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교 사원, 이슬람 사원, 그리고 로힝야 무슬림 공동체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군부는 2024년 2월 제정된 '징병법'을 이용해 로힝야족을 강제로 징집하고 전투 지역의 '인간 방패'로 내몰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집단학살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로힝야족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차별은 재난 구호 영역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3월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규모 7.7의 지진 이후, 만달레이 종교행정청은 교회와 이슬람 사원은 '원래의 설계와 크기'로만 재건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제한은 불교 사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 예배당이 폐허로 남거나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 군부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은 자신을 '불교 수호자'로 내세우며,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외세의 사주를 받은 국가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CSW는 이 같은 선전전이 군부의 '포트(Four Cuts)'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역 공동체의 식량·의료·구호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CSW 창립자이자 회장인 머빈 토머스(Mervyn Thomas)는 “지금 미얀마의 기독교인과 소수종교 공동체가 겪는 상황은 국제사회의 긴급한 행동을 절실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부는 민간인과 종교 시설을 겨냥한 무차별 공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징병법은 박해와 내전을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했기에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종교 소수자들이 예배당을 재건하거나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하는 것을 가로막는 차별적 행정명령도 폐지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군용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은 군부를 거치지 않고 시민단체와 신앙 기반 단체를 통해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머스 대표는 또한 “전 세계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든 바로 그때, 미얀마의 신자들은 여전히 혹독한 억압 아래 있다”며 “교회와 성직자를 겨냥한 군부의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신앙 자체에 대한 공격임을 국제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W는 끝으로 각국 정부가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원칙에 따라 미얀마 군부의 종교 박해를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필리핀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과 같은 국제적 사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한다.

CSW는 “군부가 계속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표적으로 삼는다면, 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광역접근성 우수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교회 성장의 기본 골격, 이것이 본질이다

[기획보도]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공급형 양육 프로그램에서 '자기계발형 제자훈련 2.0 온전함'으로①

교회 성장의 기본 골격, '제자훈련'으로 교계 주목,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담임 김준섭 목사)

공급형 양육 프로그램에서 '자기계발형 제자훈련'으로:
멈춘 교회가 아닌 '성장하는 성도'를 위하여
현대 교회의 위기, 해법은 '말씀을 통한 성장의 기회'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은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 회복과 공동체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 수준 약화와 20대 청년층의 신앙 이탈이 두드러지는 현실에서, 단순한 출석 독려만으로는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최근 통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본질적 방향을 다시 제시한다.

새신자 조사(2021)에서 새신자가 믿음을 갖게 된 데 가장 도움이 된 요인 1위는 '성경공부'(20%)로, '설교'(15%)나 '기도 응답'(15%)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또한,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말씀과 제자훈련' 등의 활동이 활발한 교회일수록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역 회복률(헌금 99%, 소그룹 98%, 말씀공부 92% 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말씀과 관련된 제자훈련과 관련된 교

회의 활동 참여율이 낮은 성도들의 신앙 약화 비율은 33%로, 정기 참여자(18%)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말씀과 제자훈련 등에 기반한 소그룹 정기 참여율은 전체 41%에 비해 27%로 낮아, 이들의 신앙 약화(34%)의 지표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 훈련'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회복한다는 점이다. 이제 교회는 '출석하는 성도'를 넘어 '성장하는 제자'를 세우는 본질적 사명에 집중할 때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제자훈련 2.0을 도입한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남부권 제자훈련 거점으로 부상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며 체계적 제자훈련으로 교회의 체질을 강화하는 사례가 주목된다. 미주 텍사스의 대표적인 교

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준섭)는 '제자훈련 2.0(온전함)' 모델을 도입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한 제자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초 다지기: 일대일 양육에서 제자훈련 도입까지

김준섭 목사는 부임 당시 교회가 체계적 양육 프로그램의 공백과 말씀과 삶을 연계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분석한 후, 가장 먼저 '두란노 일대일 제자양육'(16주)을 도입해 리더십부터 훈련했다. 이 과정에서 약 110명의 인도자가 배출되며, 교회 내 말씀 훈련의 토양이 마련됐다. 다음 단계로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근간인 '제자훈련 1.0(고(故) 옥한흠 목사 체제)'을 교역자-장로가 먼저 약 9개월(36주) 이수한 뒤 평신도 1기를 운영했으며, 이 역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좋은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좋은 출발이었다.

◆업그레이드: 제자훈련 2.0 '온전함'으로의 전환

제자훈련 1.0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현대 성도의 언어와 환경에 맞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교회는 '제자훈련 2.0(온전함)'으로 전환했다. 김 목사는 CAL Seminar를 재이수하며 2.0의 취지와 구조를 점검했고, 현장 적용을 위한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제자훈련반 제1기반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제자훈련 장로반 수료의 현장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운영 설계를 직접 챙겼다. 2.0은 1.0의 핵심 가치를 잇되 세계관, 정서(감정), 인간관계, 언어생활, 알일터, 신앙의 세대 계승 등을 보강해 오늘의 과제를 다룬다. 조직신학 파트(2권)에는 교회론을 자체 보강해, 말씀-교회사명의 축을 선명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김준섭 담임목사: "교회의 희망은 프로그램이나 건물에 있지 않다.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자훈련으로



제1기 제자훈련 수료자 간증의 시간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영적 투자입니다."

김상범 훈련담당 목사: 제자훈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는 김 목사는 "제자훈련은 주 교재 외에도 통독, 독서보고, 적용 등 제출해야 할 과제물이 많습니다 (웃음). 현장의 교역자가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점검하고 피드백하

는데, 이 과정에서 교역자도 함께 배우고 성도와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 자체가 곧 훈련이며 성장의 산실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32주의 '몰입형' 트랙
훈련은 총 32주로,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성경 통독(암송, 큐티, 주일설교 적용, 관상도서약 20권 중 12권) 독서보고 등 주간 과제가 주어진다. 훈련의 목적과 강도를 감안해, 사전 인터뷰로 시간-현신(순종)에 대한 각오를 확인한다. 현장 적용 강화를 위해 최소 1박 2일 미션 트림을 의무화, 배운 내용을 실제 사역 조건에서 검증한다.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는 팬데믹 시기에도 안정적 공동체 유지와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는 소그룹-성경공부 활성화가 높을수록 사역 회복률이 높다는 2025년 통계와 궤를 같이한다.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을 넘어, 신앙 약화와 청년 이탈을 줄이는 '예방 백신'이자, 사역 전반을 떠받치는 백본(골격)으로 기능하며, 교회의 최종 목표는 '지식 축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사역의 현장'이다. 수료자는 목장(소그룹) 리더로 세워져 말씀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일으킨다. 교회는 수료율, 목장 리더 배출 수, 미션 트림 참여율-사후 적용률 등 정량 지표로 과정과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디 한 기자

비영리단체 설립 및 AI도구 활용한 Grant 나레이션 작성 무료 공개 강의



비영리단체 설립 및 AI도구를 활용한 Grant 나레이션 작성 공개 무료 강의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ICMM,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와 Global Vision University 주관으로 11월 8일 오후 1시 오렌지 카운티 OC 강의실에서 현장과 Zoom으로 진행된다.

특별히 이번 강의는 비영리 단체 설립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IRS로부터 Tax Exempt 승인 받음으로 도내내이션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 단체가 신청할 수 있

는 그랜트를 소개하고 그랜트 신청을 위한 나레이션 작성을 AI도구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이다.

강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한 자원사업으로 준비했으며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 그랜트 신청 등에 관심이 있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비즈니스 선교, 비영리단체 등 모든 분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강의를 담당하는 제임스 구(Dr. James Koo) 박사는 학교 행정 전문가로서 여러 신학교 및 경영 대학교에서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정보통신, 플랫폼 선교 및 목회, 실천신학, 경영 및 회계학 교수 사역과 함께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

문가로 활동 중에 있으며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와 그레이스 글로벌 비전스쿨(Grace Global Vision School) 대표로 교육을 통한 교육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으며 글로벌비전 교회를 통해서 플랫폼 선교와 목회 사역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구 교수는 남가주 한인 목사회 학술분과 위원장으로 목회자 교육 및 학술 진흥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2-3회에 걸쳐 커뮤니티를 위해서 비영리 단체 설립, 운영 및 회계, 세금 보고관련한 무료 강의를 주관하였다.

강의에 대한 문의는 949-667-0264, 714-393-4595(문자가가능) 혹은 icmm@churchhomepage.org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오픈뱅크-오픈청지기재단, 저소득층 노년층 위한 커뮤니티 키친 및 직업 개발 지원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위한 종합 커뮤니티 키친 및 직업 개발 프로그램에도 동참한다.

오픈뱅크(행장 오상교)와 오픈청지기재단(이사장 최화섭)은 지난달 30일 이스트 LA 지역에서 활동 중인 Eastmont Community Center(이하 ECC)를 직접 방문해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위한 ECC 커뮤니티 키친 및 직업 개발 프로그램 'Empowerment Through Food'에 지원금 2만달러를 전달했다.

음식을 통해 새롭게 커뮤니티를 세운다는 의미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저소득층들이 겪는 식량 불안정, 실업, 사회적 고립, 가족 지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요리

교육, 취업 지원, 커뮤니티 활동, 금융 교육을 통해 소외계층이 필수 기술을 습득함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완비된 커뮤니티 키친에서 다언어 구사가 가능한 요리 강사 및 취업 코디네이터들이 직접 실습 위주의 요리 워크숍과 직업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요식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은 지난 달에 저소득층에게 주택 개보수용 공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메이커스 허브(Makers Hub)에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ECC의 프로그램에도 지원, 저소득층을 향한 직업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폭을 늘려가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비영리단체 Eastmont Community Center(ECC)를 방문한 오픈뱅크의 오상교 행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제이 박 전무(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 ECC의 직원들과 지원금을 전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체 측 제공

앞으로 여러 정부관련 지원 사업에도 동참해 저소득층의 재정적 안정을 찾는 데 힘을 보탬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트럼프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존재적 위협 직면”

‘특별우려국’ 재지정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존재적 위협(existential threat)에 처해 있다”며 미국 국무부에 해당 국가를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 명단에 다시 포함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학살당하고 있다”며 “이제 미국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대규모 학살의 주범”이라며 “나이지리아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가 아니다. 기독교인이나 다른 어떤 집단이 지금 나이지리아에서처럼 학살당하고 있을 때, 반드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로, 최근 수년간 북동부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중부 지역의 무장 폭족민 공격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오른 상태다.

국제 기독교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되는 기독교인 중 절반 이상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다.

미국 내 기독교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가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나이지리아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런 잔혹 행위가 벌어지는 동안 방관할 수 없다”며 “전 세계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준비태에 있으며, 행동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화당 소속 라일리 무어 하원의원(R-WV)과 톱 톱 하원 세출위원장에게 “이 사안을 즉시 조사하고 보고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독일보 DB

나이지리아를 처음으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해당 지정을 해제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들어 미 의회 내 보수 의원들은 나이지리아를 다시 CPC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국제기독교연대(ICC)’은 트럼프의 발표를 환영하며 “이번 조치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고통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 라이트 ICC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나이지리아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결정이 다른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폭력과 박해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구호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프랭클린 그래함, 수단 엘파세르 학살 규탄… “급진 이슬람의 민낯”

미국 내 주(州)별 신앙 자유 환경을 비교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나파법률연구소(Napa Legal Institute)는 최근 ‘2025 신앙과 자유 지수(Faith and Freedom Index)’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각 주가 종교 기반 비영리단체의 자유를 얼마나 보호하는지를 0~100점 척도로 평가했다. 평가는 △종교의 자유 점수와 △규제의 자유 점수 두 항목을 종합해 산출됐다.

나파법률연구소 콘텐츠 디렉터 프랭크 데비토(Frank DeVito) 선임 고문은 “이 지수는 입법자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보호를 강화하거나 유해한 법을 폐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밝혔다.

종교 자유 점수는 △주 헌법 내 종교 자유 보장 조항 존재 여부 △종교 자유 회복법(RFRA) 제정 여부 △비영리 단체의 공공 프로그램 운영 시 종교 자유 보장 정도 △신앙 기반 고용주의 권리 △비상사태 시 종교활동 보호 여부 △블레인 수정조항(Blaine Amendment)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 앨라배마(86%)와 캔자스(79%)가 종교 자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미시시피(67%), 조지아(67%), 플로리다(63%)가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미시간(22%), 버몬트(23%), 델라웨어(25%), 워싱턴(26%), 메릴랜드(27%)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나파법률연구소는 미시간과 워싱턴을 “신앙 기반 비영리단체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며 심지어 적대적인 주”로 지목했다.

데비토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종교 자유 침해 사례들은 강력한 주 차원의 보호가 없을 경우 일반 시민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이미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법정 다툼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기독일보 DB

규제 자유 점수에서는 인디애나(82%)와 몬테나(80%)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아이오와(79%), 애리조나(77%), 텍사스와 와이오밍(이상 76%)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일리노이(40%), 미시간(45%), 매사추세츠(48%), 사우스다코타(49%), 워싱턴(49%)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항목은 △비영리 종교단체 법 △주요 법인 활동의 사전 통지 및 동의 요건 △이사회 윤리 기준 △기부 등록 및 감사 규정 △법인세·관매세·재산세 면제 여부 등 여러 요소로 평가됐다.

종합 점수에서 앨라배마(72%)가 1위를 차지했으며, 캔자스(69%), 인디애나(68%), 텍사스(65%), 미시시피(63%)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앨라배마에 대해 “헌법상 종교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활동에 정부가 부담을 줄 경우 ‘엄격심사(strict scrutiny)’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방 501(c)(3) 단체에는 자동으로 주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미시간(31%), 워싱턴(35%), 매사추세츠(37%), 일리노이·메릴랜드·웨스트버지니아(각 38%)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특히 미시간의 경우 “종교 단체의 주 정부 자금 수령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블레인 수정조항”과 “공공시설 및 고용과 관련된 차별금지법에 종교 단체에 대한 실질적 예외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인도, 기독교 박해 여전… 선교사 폭행·기독교인 경제적 보이콧 심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가 여전히 심각한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에 따르면 인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로, 공산국가인 중국과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힌두 극단주의 세력의 폭력과 차별이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도에서는 두 건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첫 번째 사건은 선교사들이 탄 버스가 힌두교도들에 의해 습격당한 일이다.

지난 10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선교사들이 지역 주민의 초청으로 주타나(Juthana) 마을로 향하던 중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현장 영상에는 선교사들의 비명이 담겨 있으며, 가해자들은 선교사들이 “돈을 주며 개종을 시도하고 힌두 신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세계기독교연대(CSW)는 “경찰이 초기에 제대로 개입하지 않았고, 결국 8명의 경찰이 직무태만으

로 정적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CSW 창립자 머빈 토머스(Mervyn Thomas)는 “이번 폭력 사태는 평화로운 종교 소수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불관용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정의 구현과 종교 소수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사건은 인도 남부의 한 어촌 마을에서 발생했다. 기독교인 주민들이 마을 여신 신전을 위한 기금 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힌두교 이웃들에 의해 사회경제적 보이콧을 당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기독교인 약 100가구가 공동 여장 출입 금지, 물품 구매 거부, 사회 행사 참여 제한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들은 기본적인 생계 활동조차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지 한 기독교인 여성은 “집 바로 옆 사람과 대화만 해도 벌금을 물게 된다. 가게에서도 물건



인도 지도 ©mapswire

을 팔지 않아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다”며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마을에서 이제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어 너무 슬프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비힌두교도는 신전 건립에 기여할 의무가 없지만, 지역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해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으나, 힌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미경 기자

미 연방정부 섀다운으로 캐나다 무역통계 발표 지연

“주요 데이터 제공 못받아 향후 몇 개월 간 발표에 지장”

캐나다 통계청은 2025년 9월의 캐나다 국제무역 통계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유는 미 연방정부의 섀다운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가지 지장 때문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국제 상품 교역과 국제 용역 부문의 통계는 원래 11월 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발표 날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통계청은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미 수출량 통계 발표는 미국 인구조사국(USCB) 자료를 근거

로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미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로 인해 USCB의 주요 업무가 정지되었고, 주요 데이터가 아직도 캐나다 통계청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9월의 월간 상품교역량 통계 발표를 연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용역의 월간 교류 통계발표도 마찬가지로 연기한다. 이 역시 완전한 상품 교역량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의 올 해 3분기 국제수

지 경제액과 국내총생산(GDP)의 발표는 11월 27일과 2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날짜에 출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때까지도 9월 대미 무역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월간 수출량의 특별 추산액을 데이터 모델을 통해 추출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앞으로 몇 달 동안의 통계 발표도 미국 정부의 섀다운 지속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8~2019년에도 미국 연방정부의 35일간의 섀다운으로 당시 캐나다 국제 무역통계 발표가 5개월 연속 지연된 적이 있다.

차미례 기자



ANYWHERE... ✈ ...IS POSSIBLE

당신만의
특별한 곳은
어디인가요?

ANYWHERE IS POSSIBLE



대한항공

 KOREAN AIR

초록우산,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최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주배경아동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을 법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주배경아동 5명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및 초록우산 김승현 아동옹호본부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주배경아동들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출생등록 ▲체류권 ▲교육권 등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교육권과 관련해 학교 입학 과정의 장벽, 언어 적응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문제를 생생히 전했다.

경기 시흥의 이주배경아동 A군(12세)은 “중도 입국 직후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인근 초등학교에서 거부했다”며 “가려던 학교에서 한국어 지원이 어렵다며 입학이 어렵다고 했었다”고 털어놨다.

대구의 이주배경아동 B군(15세)은 서류가 문제가 되어 입학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다. B군은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려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될 때까지 약 4개월 학교를 가지 못했다”며 “이후에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는 한국어교실이 없어서 수업 적응이 어려웠다”고 했다.

이러한 이주배경아동의 현실 개선을 위해 김용태 의원은 초록우산과 협력해 같은 날 「조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



초록우산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10월 29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에서 이주배경아동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초록우산

체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외국인 아동의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을 안내하도

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록우산은 해당 개정안이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

별적으로 이뤄지던 외국인 아동 정보 연계 및 다국어 입학 안내를 제도화해 이주배경아동 교육권을 개선하는 법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초록우산은 개정안 통과와 함께 대상 범위 확대, 법적 실효성 강화 등 우리 제도가 이주배경아동의 실질적 취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 이행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초록우산은 이주배경아동이 취학·입학 통지 대상에서 누락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왔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국내 제도로 구체화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발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용태 의원에게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 현판과 배지를 전달했다. 초록우산은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 개선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굿피플, ‘2025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개최

식료품 22억원 규모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이용기)은 최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5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 이용기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구세군대 한봉영 김병운 사령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남권 사무총장, 서울사회복지협의회 김현호 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최경래 장로회장, CJ제일제당 강진희 본부장, CJ제일제당 봉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봉사단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굿피플은 2012년부터 매년 겨울을 앞두고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식료품과 생필품을 상자에 담아 전하는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를 개최해왔다. 지금까지 총 34만8천박스가 전달됐으며 지원 규모는 누적 325억원에 달한다.

박싱데이는 중세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다음날 소의 이웃에게 생필품을 상자에 담아 나눠 주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는 ‘2025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행사에서 소의 이웃에게 전달될 사랑의 희망박스를 직접 포장했다. 또한 CJ제일제당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상자에는 즉석밥, 간편조리식품, 김, 캔

햄, 고추장, 된장, 간장, 굴소스 등 CJ제일제당과 함께 준비한 식료품 16종이 담겼다.

굿피플은 이날 포장된 사랑의 희망박스 1천 개를 포함해 총 2만5천 개를 오는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할 계획이다. 상자에 담긴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22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굿피플과 함께 아름다운 나눔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약자 동행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력하겠다”고 전했다.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은 “사랑의 희망박스에는 식료품과 생필품뿐만 아니라 박스를 포장하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담기게 된다”며 “오늘 함께 전하는 사랑의 희망박스가 시린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굿피플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5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굿피플

굿네이버스, 성우 남도형 나눔대사 위촉

최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성우 남도형을 나눔대사로 위촉했다.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진행된 위촉식에는 성우 남도형과 전미선 굿네이버스 부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했다.

성우 남도형은 2012년 모금 방송 내레이션 참여를 계기로 굿네이버스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해외아동 11 결연 후원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13개국 14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3월 경남·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한 것을 계기로 굿네이버스 특별회원 모임 ‘더네이버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성우 남도형은 좋은 이웃 콘서트에 MC로 참여하는 등 굿네이버스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도 앞장섰다. 특히 올 해는 유산기부 캠페인 영상에 내레이션



굿네이버스는 성우 남도형(오른쪽)을 나눔대사로 위촉했다. ©굿네이버스

재능기부로 참여했으며, 지난 9월에는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서 열린 기부 러닝 대회 ‘굿네이버스 레이스’의 사회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앞으로 남도형 나눔대사는 ‘제18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캠페인 영상에 참여하는 등 굿네이버스 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로 나눔을 독려하고, 사업 보고를 전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남도형 나눔대사는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는 아동을 비롯해 많은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되돌려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아직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나눔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미선 굿네이버스 부사무총장은 “그동안 굿네이버스 활동에 깊은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남도형 나눔대사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남도형 나눔대사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통해 나눔이 만든 좋은 변화의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한국해비타트,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식서 박애장 금장 수상

30년간 이어온 주거복지 실천과 인도주의 공로 인정받아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가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을 맞아 ‘적십자 박애장 금장’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으며, 이번 수상은 한국해비타트가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에서 이어온 인도주의적 활동과 주거복지 향상 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적십자 박애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인명을 구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탁월한 공로를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는 포상이다. 한국해비타트는 1994년 설립 이후 ‘모든 사람에게는 인락한 집이 있는 세상(A world where everyone has a decent place to live)’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

층의 자립과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 625 참전용사, 산발 및 재난 피해 이재민, 반지하 침수 위험 가구, 한부모가족, 국내 이주 고려인, 자립준비 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단순한 주택 지원을 넘어 삶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현재까지 한국해비타트는 29,000세대 이상을 지원했으며, 1세대당 평균 3명으로 계산하면 약 9만 명의 삶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또한 4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이 활동에 동참하며 사랑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켰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대한



(왼쪽부터)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에게 상을 하고 있다. ©한국해비타트

적십자사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인도주의 기관으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최소한의 주거 환경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의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무서운 말씀: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로빈 슈마하(사진)의 기고글인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무서운 말씀(3 scary things that Jesus said)'을 3일(현지시간) 게재했다.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슈마하는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많은 책을 썼고 미국 내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누구에게든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무섭다(scary)”라는 단어를 꺼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성품을 묘사하신 유일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9-30).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사람들이 “무섭다”는 단어를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를 두렵게 만들

만한 경고의 말씀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중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자.

1. 불타는 가지(Burned Branches)

오늘날의 포스트모던(postmodern), 탈진리(post-truth) 시대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관을 따라간다. 하지만 성경 속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참된 진리(True Truth)”가 존재하며, 그분 자신이 바로 그 진리라는 것이다. 다른 것을 따르는 인생은 결국 파멸로 향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4-5)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선포하신다.

C. 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긴 이유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면, 그분은 위대한 도덕 교사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선택은 오직

하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요 15:6)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와 함께 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다.”

요한복음뿐 아니라, 세례 요한도 경고했다. “이미 도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마 3:10)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다. “좋아롭다온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마 7:19)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히 6:7-8)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를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끝은 불타는 심판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닌가?

2. 가짜 그리스도(Fake Christs)

요한복음의 또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린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 이 짧은 말씀에는 두 가지 무서운 진리가 담겨 있다.

첫째, 예수님을 거부한 자의 운명이다. 주석가 월부르드와 블룸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 이유는 죄를 짊어진 분(요 1:29)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을 놓치게 된다.”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이니라(I am He)”라는 표현의 의미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말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가짜 예수’가 너무 많다.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셨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 24:5)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다.

이슬람의 ‘예수’, 이단 종교들의 ‘예수’, 동양 종교 속 ‘예수’, 심지어 사람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자기만의 예수’까지 모두 구원할 능력이 없는 가짜 예수들이다.

A. W. 토저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 올바른 진리를 믿는다는 뜻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의 말처럼,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잘못된 예수를 믿으면, 진짜 구원은 없다.

3. 가짜 믿음(Fake Faith)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은 필자 자신에게 직접 해당되었던 구절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우지 아니 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23)

필자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 예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 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거룩한 애정(Holy Affections)’이 필자에게는 없었다.

청교도 매튜 미드는 이런 사람을 “거의 그리스도인(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불렀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마 7:26-27).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로 착각한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착하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집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3)

오늘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단 두 부류뿐이다. 심판이 이미 끝난 자 그리고 심판이 아직 앞에 있는 자. 그 사이엔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무서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자 초대다.

“우리가 무슨 일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후 13:5)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최승연 기자

“인간, 사랑과 분노의 사이에 선 존재”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브라이언 해리스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본성과 악마적인 성향, 그 두 가지와 씨름한다는 뜻이다’(To be human means to deal with both our divine and demonic tendencies)’를 3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이런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고객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왜 노아가 방주에 사람 대신 동물만 태웠는지 이해할 것이다.” 배달 실수로 사과 대신 배를 받은 고객이나, 밀크 초콜릿 진저비스킷 대신 다크 초콜릿 버전이 온 것에 분노하는 고객을 상대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절로 웃음을 자아낼 것이다.

아주 사소한 일이 우리를 얼마나 웅얼하고 비뚤어지게, 그리고 표면 아래에서 끓는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드는지 놀랍지 않은가?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 상황이 바뀌면, 같은 사람이 놀라운 만큼 관대하고, 희생적이며, 인내심 깊고, 따뜻한 격려자가 되기도 한다. 인간 안에 이렇게 극단적인 폭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필자는 내 안에 있는 이 ‘폭’에 가장 실망한다. 필자는 쉽게 소리 지르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안에 이런 상반된 면모가 공존한다는 사실은 늘 나를 당혹스럽게 한다. 많은 상황에서 필자는 진심으로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쓴다. 하지만 어딘가 모를 ‘천’을 넘어가는 순간, 필자의 태도는 냉소적으로 굳어지고, 내면의 비판가가 고개를 들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무심해진다.

어떻게 이런 이해심 깊은 나와 판단적인 내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둘 다 내 안에 있고, 그 사실이 필자를 괴롭게 한다. 이 문제는 사실 기독교 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낯선 주제가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창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즉,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와 필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미미한 존재다. 그래서 장례식에서는 “흙에서 왔으니 흙

으로 돌아가리라(Dust to dust, ashes to ashes)”라는 말이 낭송된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기(breath of God)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었다. 흙이 우리의 비천함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의 존귀함을 상징한다.

창세기 1장 27절은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그렇다. 우리는 단지 존재하는 것 이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 창조의 정점이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신성과 타락 사이의 긴장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은 인간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바로 다음 장인 3장은 그 깊은 타락의 심연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다.

창세기 4장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전한다.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며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 세상 최초의 부모는 살인자를 자식으로 둔 부모가 된다. 형제에는 깨지고, 피로 얼룩진 인류의 초상화가 펼쳐진다. 인류의 역사는 그 이후 끝없는 전쟁의 역사로 이어진다. 이것은 창세기의 초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성경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편 8편 5절은 말한다: “주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139편 14절도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께서 나를 두렵고도 놀랍게 지으셨나이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빚어진 존재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문과 악의 흔적이 함께 있다.

우리는 모순된 존재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부정하고, “우린 다 멋지고 선한 존재야!”라고 외친다. 그러나 그 환상이 무너질 때면, 극단적으로 자신을 혐오하며 “우린 아무 가치 없어”라는 절망으로 떨어진다. 때로는 코끼리나 쥐가 인간보다 더 공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관찰은 결국 로마서 3장 23절의 진리를 다시 상기시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많은 사람은 이 말을 불쾌하게 받아들인다. “내가 무슨 악당이라는 거야?”라고 반응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sin)’란 최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것, 즉 ‘과녁에서 빗나감’을 뜻한다.

즉,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보다 덜 된 존재”라는 뜻이다. 이런 사실 모든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부족함의 결과인 혼돈과 파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그분의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이자, 새롭게 시작할 초대의 자리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도록 부르신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두렵고도 놀랍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이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사소한 일로 기분이 상했다면, 한번 물어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다운 모습을 살고 있는가?” (참고로, 슈퍼마켓에서 누가 새치기했다고, 혹은 주차 자리를 빼앗겼다고 당신이 그토록 화내도록 창조된 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선함을 대표하도록 만드셨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진심으로 좋은 질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인간들까지 태울 수 있는 또 다른 ‘방주’, 즉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공동체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저금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기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전코 선택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나의 계획이 다 헝클어진 것 같을 때에도

본문: 마태복음 1장 18~20절
설교: 미국 달라스 리스타트
교회 담임 박형용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18-20절)

오늘 우리가 만나 볼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작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목수기술을 열심히 연마했고,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 질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마리아와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이제 얼마 뒤면 같은 집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어떤 성적인 접촉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더니 급기야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차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다스리고, 큰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죠(마 11:8-19 참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 해주기를 마리아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요셉과 마리아가 사용 되도록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니 두려워 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요셉은 비록

당황스럽고, 자신이 계획하던 인생의 방향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조서에 응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은 만삭의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출신의 압박했던 거죠. 아기를 처음 낳아보는 부부였기 때문에 마리아도 당황하고, 요셉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깨끗한 장소를 찾아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다니며 장소를 찾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아기를 낳을 장소를 찾지 못해서 동물들이 먹고 자는 곳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급하게 아기를 낳아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장소를 찾는데 시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쩔 수 없이 그 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손을 꼭 잡아 주고 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귀들이 있는 그 우리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하는 것을 봐야 하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럽고 비위생적인 그곳에서 아들을 출산하게 해야 했던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사실 요셉이 계획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정직하게 살면서 욕심없이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요셉의 꿈이었고 게 확이었죠. 그런데 어느날 성령께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더니,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초라한 집승의 우리에서 출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

릴 때, 같이 기뻐하고 환호해 주며 그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그런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딘가요? 나귀 같은 동물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더러운 구유에서,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고 누구도 배려해 주지 않는 공간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첫 출산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의 출산을 도와 줄 산파도 구하지 못했고, 아내가 편히 쉴 침대도 없고, 집승들이 베고 누는 지푸라기 같은 것에 몸을 가넌채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비위생적인 곳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 하셨을 때, 비록 나의 행복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어도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바란 것도 아니네.

...이란곳에서 내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차가운 집승의 우리에서 출산을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

원망할 이유가 넘쳐났지만, 현실은 요셉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 어둠보다 크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함께하셨기에

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이즈를 재고, 설계도를 만들어 내서, 그 사이즈에 딱 들어맞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은 더욱더 계획적인 사람이었을 것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일을 실행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날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호적하러 가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초라한 구유에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요셉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인생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예상한 내용과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승의 구유에서 아기를 출산한 마리아를 보고 있는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의문과 질문들이 차올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서있는 나귀의 구유는, 우리의 상황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말라리아로 잃어버린채 울고 있는 선교사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어느 날 인종차별 시위를 틈타서 가게에 찾아온 약탈꾼 들 때문에 부서지고 텅빈 가게를 보고 있는 어느 집사님의 모습일 수도 있죠. 또한 오늘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른 꿈들을 다 버리고 시골로, 섬으로, 사람들이 가지않는 곳으로 가서 목회를 하기로 결정한데, 하루 먹을 양식도 모자라서 매일매일 가족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떤 시골과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이게 아니네,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게 아니네..물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한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처음 천사가 나타났을 때부터, 마리아가 잉태하고, 아기를 낳는 오늘까지도 요셉의 머릿속은 혼란한 것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짐을 꾸려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고, 비록 그 곳이 집승의 구유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요셉도 속상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자에게 이렇게 까지 하시는지, 왜 하필이면 자기인지,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고,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다보면, 때때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까지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의문들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뵈는 그 날까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해되지 않을 지라도” 순종했던 요

셉과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순간과 현실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성경이 요셉의 순종으로 인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예수”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꾸었던 소박한 꿈은, 사랑하는 아내의 출산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축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집승의 구유에서 출산하는 것은 그에게 커다란 서운함을 주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큰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슬픔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현실속에 버려 두십니까?”라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구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기에 마땅한 그 현실도 끝까지 요셉의 인생을 어둠속에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 나님이기 때문이었고, 구유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 정도로 힘들지는 몰랐다고 해서, 혹시 주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때면 오늘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시편 94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사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던, 어떤 상황속에 계시던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기자의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AMJIN 삼진제약

발열

인후통

몸살

근육통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30정

광고심의필: 2022 - 1618 - 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펜토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증통(염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 - 082 - 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진호 목사
인터넷 기독교 문서 사역자



[질문] 기록 청년인데도 부끄럽게도 최근까지도 음란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회개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마음에 짊어졌던 차에 아버지의 새차를 빌려끌었다가 음주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했고 수리비로 꽤 큰 금액이 나왔으니 가해자는 뺑소니를 채버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벌 받은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저만 벌을 주지 않고 애꿎은 저희 부모님이 피해를 입게 만든 것인지 너무 심하다는 의문과 원망이 계속 듭니다. 빨리 제가 돈을 벌어서라도 아버지 새차를 사는 데 도와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서 회개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곤혹스럽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때신지요?

[답변] 가장 먼저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므로 같은 인간인 제 삼자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서 하나님의 징계 내지 심판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어떤 죄를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와, 현재 일어난 불행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확히 잘 아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고 또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비춰서 순전하고도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 잘 묵상하고 기도해 가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심판은 불신자가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이며, 징계는 신자가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이 신자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려고 일시적으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도 죽기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을 범하면 자식이 올바른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드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가 죄를 지을 때

마다 일일이 곧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매번 그러면 당장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가 온 몸이 쪼아터져서 성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분은 신자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아 주십니다. 신자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도 전혀 회개치 않고 있으면, 그것도 당신의 인내의 한계가 잘 때, 비로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형벌도 반드시 자신이 지었던 죄와 연결된 모습으로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확실히 깨닫고서 그 죄를 고쳐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주십니다. 예컨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죄를 계속 범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도 똑같이 말로서 더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지은 죄와 아무 연관이 없는 불행한 사건은 본인이 실수한 것이거나, 다른 이의 꾀방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죄의 형벌은 그 죄를 지은 본인에게 내립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식이, 또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벌을 받는 법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의 의는 자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겔18:20) 물론 자식이 불효의 죄를 범했다면 부모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서 자식으로 불효의 죄를 지었다고 알게 해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되는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형제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형제님이 음란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와 연관되는 방식의 징계를 언젠가는 내릴 것입니다. 그 때와 방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가 회개란 단순히 잘못된 것을 깨닫고서 사죄하는 기도로 그쳐선 안 됩니다. 그 잘못을 완전히 고쳐서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살아 있어서 또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도 수와 세기는 현저히 줄여 나가야 하고, 혹시 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애통해 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 원칙에 따르면, 만약 어떤 연유로든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벌이라서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히2:8,10) 형제님의 경우는 말씀하신 사안 두 가지를 벌개로 나눠서 접근 대처해야 합니다. 음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잘못은 지금부터라도 고쳐 나가면 됩니다. 아버지 차의 사고는 어차피 이미 일어난 불행입니다. 그 사건 자체를 되돌릴 수는 절대 없으며 그 일을 두고 후회한들 본인만 손해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문제가 아니며 그렇게 억울해 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해도 본인의 영혼만 파멸해집니다. 차는 보험에서 잘 처리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버지가 새 차를 사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면 됩니다. 아마 아버지가 굳이 그렇게 하라고 사기지도 않을 것이며 또 돈을 쥐도 안 받을 것이지만, 그런 마음 가짐과 실천하는 태도는 하나님과 아버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벌어진 상황이 황당하고 피해가 커더라도 하나님께 화가 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대들면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천하의 호로자식입니다. 기도도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하나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며 정작 그분의 징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형제님은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건드려 큰 벌을 받았는지 아닌지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당신의 원수였던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형제님은 하나님 그분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형제님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음란 죄를 완전히 끊느냐, 아버지 차를 빨리 사드리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인간을 주관 통치하시는지부터 정확히 알아 나가야 합니다. 평소예 말씀과 기도로 일대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1980년 8월 ‘전두환 위한 기도회’는 연례 국가조찬기도회와 무관



김철영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부회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1월 4일 열리기로 했던 연례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리지 못하는 등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러면서 1980년 8월 6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한국교회 지도자 23명이 참석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초청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연례 국가조찬기도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국가조찬기도회를 비판할 때마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인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 8월 6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한국교회 지도자 23명이 참석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장 초청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는 연례 국가조찬기도회와는 무관하다. 그 기도회는 당시 보안사 군목이었던 문만필 목사(중령 예편, 대한기독교성결교회 소속으로 서울신대 이사를 자բ가 기성 총회장을 역임한 정진경 목사(신촌성결교회)의 도움을 받아 추진한 기도회였다. 그 조찬기도회는 보안사 군목인 문만필 목사(기성 소속)의 사화로 조향록 목사(기독교장로회, 초동교회), 김지길 목사(기감, 아현감리교회), 정진경 목사(기성 총회장, 신촌성결교회), 김인득 장로(백산그룹회장, 종신대 재단이사장)가 맡았다. 설교는 영락교회 환경직 원로목사가 맡았다. 전두환 국보위위원장은 인사말을 했다. 기도회는 장성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그 기도회에는 새문안교회 강신명(예장통합), 김용도(기침), 김윤식(예장통합), 김준곤, 김장인 목사(예장합동), 김해득(구세군), 박정근(순복음), 박치순(예장통합), 신현균(예장통합), 유홍목, 이경재(기감), 이봉성(기성), 장성철, 장성영 목사, 조덕

현 목사(기장), 지원상 목사(루터교)와 최태섭 장로 등 23명이 참석했다. MBC와 KBS가 생방송을 하면서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후 녹화방송을 두 차례 내보냈다. 전두환을 홍보하기 위한 신군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조찬기도회가 중심이 된 연례 국가조찬기도회는 언제 열렸는가? 그동안 1980년에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당시 언론보도를 찾아낸 결과 제12회 연례 국가조찬기도회는 '서울의 봄' 때인 1980년 5월 1일 오전 8시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그 기도회는 한기원 목사(동신교회)가 기도(설교)를 인도이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였으며, 민관식 국회의장직무대리, 이영섭 대법원장, 신현확 국무총리 등 3부 요인, 김영삼 신민당 총재, 신두영 감사원장,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규현 문공부장관, 위컴 주한 유엔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한기원 목사는 새 시대의 지도자상이라는 기도(설교)를 통해 "고금 역사를 통해 시대가 혼란할 때 믿음 있는 지도자들이

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비판하지 않고 현실을 현실대로 파악하면서 국민에게 단합과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면서 "공평, 정의, 평화 세 가지 요소가 실현되지 못하는 정부 형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현실사회를 보는 지도자의 눈에는 분명한 미래상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규하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압력으로 8월 16일 하야했다. 그리고 전두환 씨는 1980년 8월 27일 치러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채육관 선거(보궐선거)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9월 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리고 1980년 9월 30일 신라호텔에서 1,300여 명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통령 취임 축하 조찬기도회가 열렸다. 그날 예배는 흥현설 목사(전 감신대 학장)의 사화로 최훈 목사(동도교회)가 "대통령을 위하여", 김희택 목사(성결교 총회장)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조항록 목사(전 한신대 학장)가 "국군장

병을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김인득 장로(기독실업인회 직전 회장)의 성경봉독, 선명회 합창단 찬양, 강신명 목사(새문안교회 원로)가 설교를 했다. 김정호 목사(전 기상 총회장)는 전 대통령에게 성경책을 증정했다. 또한 축도는 한경직 목사(영락교회 원로)가 맡았다. 이듬해인 1981년 5월 14일 오전 8시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연례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다. 이태섭 의원(민정당의 사화로 유호준 목사(예장통합, 용산교회)가 개회사를 했다. 개회기도는 이영수 목사(예장합동, 대전중앙교회)가 맡았다. 구약성서 낭독은 나석호 의원(민정당), 신약성서 낭독은 오홍석 의원(민한당)이 맡은 161~9절과 갈라디아서 17절을 각각 봉독했다. 햇빛회 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곡선희 목사(예장통합, 소망교회)가 "소명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특별기도는 오경린 목사(동대문감리교회)와 이봉성 목사(기성)가 "나라를 위하여"와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를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축도는 김주오 목사(예장고신)가 맡았다. 그리고 조찬감사기도는

김순배 구세군 사령관이 담당했다. 1948년 제헌국회 때 이승만 임시의장의 사화로 이윤영 의원(목사)의 기도도 국회가 시작됐다. 1965년 2월 27일 김영삼, 정일형, 김종필, 박헌숙 의원 등 20여 명이 김준곤 목사(한국CCC 설립자의 기획 주도로 국회조찬기도회가 시작됐다. 이듬해인 1966년 3월 8일 국회조찬기도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당시 김영삼, 김종필 야야 의원과 노기남 대주교 등이 순서를 맡았다. 나중에는 김수환 추기경도 참석했다. 만일 정교 유작을 위한 것이었다면 야당 국회의원이 나 김수환 추기경 등이 참석했겠는가. 올해 국회조찬기도회 60주년, 국가조찬기도회 59년 주년이 됐다. 어느 단체와 사역이나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다. 이 모두 안고 가야 할 역사다. 사단법인 대한민 국가조찬기도회와 연례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한 비판을 잘 수렴하여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의 사랑을 받는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교회는 이 소중한 기도회의 역사를 계승해야 한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환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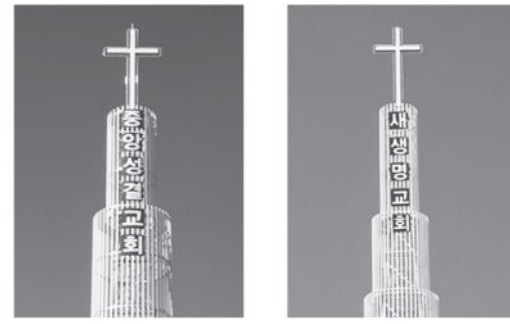
※강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NAVER 검색창에서 **충만기업** 을 치세요!

충·만·기·업



- ◆ LED 설치 및 네온수리 전문★
- ◆ 종탑, 종각, 파이프탑 시공
- ◆ 각종 구조물탑 시공
- ◆ 대형십자가, 소형십자가 시공
- ◆ 각종탑 철거, 이전

TEL: 02-802-2005 H.P: 010-5276-9049
FAX: 02-806-3334 (경남지점) 055-942-10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795-17 / 대표: 정현석 집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향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크리스천투데이



따뜻한 신앙인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정말 있는 말버와 쉬운 문제로 전하는 반전의 예언적 메시지!"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정교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장원내산교회)

매일묵상 여호와 우리의 의

[예레미야 23: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큰 위로와 평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자주 낙심하며 슬퍼합니까! 그래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패했다느니,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느니, 우리 영혼은 본래 악하다는니 하며 항상 부정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만 늘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풀 죽은 얼굴을 하고 다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아주 명랑하고 쾌활해질 것입니다. 설사 골치 아픈 일들이 나를 짓누르고, 사탄이 나를 맹공격하며, 천국에 이르기 전에 체험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한들 그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 3:9)

여러분은 천국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내가 아무리 무가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만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5:14-15)

만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구원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찰스 스펔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바이블지식IN

첫째 부활은 무엇인가요?
둘째 부활은 무엇인가요?

다니엘 12:2은 인류가 마주하게 될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운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겠지만, 모두 동일한 운명을 마주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있을 서로 다른 부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4-6은 “첫째 부활”을 예기하고 있으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사망(불못, 요한계시록 20:14)은 이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첫째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의인들이 부활”(누가복음 14:14)과 “생명의 부활”(요한복음 5:29)과 일치합니다.

첫째 부활은 여러 단계로 이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20), 그 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위한 길을 닦으셨습니다.

첫째 부활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52-53). 또한, 앞으로 주

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16), 그리고 대환난 말기에 있을 순교자들의 부활(요한계시록 20:4)이 첫째 부활에 포함됩니다.

요한계시록 20:12-13에 의하면 둘째 부활은 불못에 던져지기 전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악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둘째 부활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며 둘째 사망과 연결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29)과 일치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마지막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요한계시록 20:4) 왕 노릇 하는 것이지만, “그 나마지 죽은 자들은 [즉, 사악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5).

첫째 부활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둘째 부활에는 또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서:123).

갯케스천스 제공

날 새를 함께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부흥의 중요성 (1)

〈들어가는 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를 하기 직전인 1927년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자료를 접했으나 더 상세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두 권의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을 발견한 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이 기뻐했으며, 실로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접할 때마다 나는 몇 년 전에 두 권으로 된 베너 어브 트루스사 판 에드워즈 전집을 발견했으나, 돈이 부족해 사지 못해 매우 안타깝던 때가 생각나곤 합니다.) 그만큼 에드워즈 목사님의 저서는 진리를 사모하는 크리스천에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와 책들을 읽다가 하나님의 내밀한 심정을 보고는 불에 덴 것처럼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강하고 세미하게 역사하셨기에, 그 진리의 말씀을 읽는 나에게도 뜨거움이 전달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목사님은 설교자로서 능력을 받아, 청중들에게 정확한 성령의 음성을 전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에드워즈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물주와 만나도록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입니다. (p. 372)

실제로,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자로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목사님은 청중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인상’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교의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에드워즈가 말하듯이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설교할 때 인상이나 그 것이 설교한 후에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p. 370)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뛰어난 체험 신학자이자 부흥 신학자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 인상에 남기는 것을 중요시한 것도 부흥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체험이며, 정말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강력한 인상이 남고, 그것은 곧 거룩한 삶의 열매로 맺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부흥을 고대했으며 사모했습니다. 윌필드 목사님과 동역한 것도 부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방향에서 부흥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즉, 형식주의와 열광주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으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 후세의 크리스천에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흥을 반대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뱅주의자였으나 부흥을 싫어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요소를 싫어했고 색다른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많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극단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들은 광신주의자들인데 극단으로 치우쳐서 어리석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p. 373)

그가 이렇게 부흥에 대해 옹호하고 방어했던 이유는, 성령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부흥이라고 보았고, 성령의 소멸을 역부흥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역부흥을 막기 위해, 즉 성령의 소멸을 막기 위해, 그 당시 홀로 고군분투했던 것입니다. 이를 늘 눈에 가시같이 여기던 사탄은 전 군단을 오로지 하나의 표적, 에드워즈에게 집중해서, 그가 무너질 때까지 공격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부흥이란 성령의 부어 주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에드워즈는 부흥이 진정으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p. 379)

그가 이렇게 부흥을 강조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구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크리스천으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부흥가로서, 신학자로서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애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의 모든 책을 읽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글을 읽고 나서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포착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얻었다고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또한 최고의 체험을 누렸다고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언제나 참된 체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p. 381) - 1976 〈계승〉

찰스 스펔전의 아침묵상, 방선교단 제공

해방산농회, 강개해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송태훈 칼럼 우리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 따라 새롭게(111)



권혁승 박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 23:5)

시편 23편의 후반부(5-6절)는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시는 모습(23:5)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23:6)이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한 손님이 아니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신다. 광야의 목축 문화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그것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나그네를 보살피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곧바로 위협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도 손님 접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나산 언약과 관련된 율

법은 이방 나그네에 대한 압제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냈었기 때문이다(출 22:21). 그런 점에서 나그네를 접대하는 덕목은 단순히 목축 문화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출애굽의 역사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손님 접대에서 예의범절과 절차도 중요시한다. 오늘의 본문은 손님을 맞이하는 절차를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첫 번째 절차는 집안에 들어서는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여가에서의 기름은 감람유에 향료를 섞어 만든 것인데, 집주인이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을 맞이하면서 환영의 표시로 한다.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붓는 의식과는 구별된다. 그런 차이는 각 경우에 사용되는 동사가 다르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제사장이나 왕을 위한 기름부음에 사용되는 동사는 ‘마사흐’인데,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에 사용되는 동사는 ‘다센’이다.

‘다센’의 기본적인 의미는 ‘살이 찌다’로서, ‘번성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집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에는, 자신을 찾아 온 손님에게 번성의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다른 면에서 향료를 넣어 만든 기름은 일종의 향수 역할을 한다. 먼 길을 걸어 온 손님의 몸에서는 땀과 먼지 등으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손님에게 기름을 발라 줌으로써 그런 냄새를 제거해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름 바르는 손님에 대한 일종의 배려라 할 수 있다.

(2) 두 번째 절차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건네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의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이며(창 27:28), 사람에게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다(사 16:10; 렘 48:33). 그러므로 손님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는 주인의

호의를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포도주 잔을 건네 주는 것에는 또 다른 실제적인 면이 있다. 먼 길을 걸어 온 손님은 광야의 무더위 속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손님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 주는 것은 갈증과 더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손님은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그 동안의 피곤과 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가 있다.

(3) 세 번째 절차는 손님에게 푸짐한 밥상을 차려 주는 것이다. 손님을 향한 환영의 마지막 단계는 정성껏 음식상을 차려 주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음식상에는 단순히 음식을 나눈다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 음식 나눔은 언약 체결 의식에 동반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은 사나산 언약 체결 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출 24:11). 그것은 화목제의 제물 나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레 7:15). 언약으로서의 음식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도 잘 표현되

어 있다(마 26:26).

집주인은 그동안 손님의 뒤를 쫓아 왔던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 주었다. 여기에서 밥상과 원수 대적과의 관계는 목축 문화의 관습을 통하여 조명해야 할 요소이다. 유목민이 일단 나그네를 자기 집 천막의 손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손님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전적으로 그 집주인의 책임이 된다. 이 책임에는 의식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신변 보호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나그네가 집주인의 손님으로 영접되면, 그의 대적은 그때부터 집주인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풍성하게 차려진 밥상은 곧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힌 대적들에게서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친 광야에서의 고된 삶이 전부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의 영접이 기다리고 있다. 광야에서의 삶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

겠지만, 마지막 하나님 집으로의 영접은 고난의 모든 근본 원인들이 제거된 참 안식의 보장으로서 ‘부족함이 없음’의 마침표다.

이 땅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나라에서의 상급을 준비하는 거룩한 기회다.

이 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그 때문이다(마 5:11-12).

보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힘든 일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을 미리 준비하는 지름길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외식하는 자가 되면 그것으로 이미 상을 받은 것이어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놓치게 된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이어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 때문이다(마 6:1-4).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김성광 칼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라

나약한 인간에게 세상은 불가능한 것들 투성이다. 그리고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부분은 쉽게 낙심한다.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조차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한정짓는다는 것이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까?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맨톤(Thomas Manton, 1620-1677)은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측량할 수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거나 짐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그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분도 아니다. 그럼에도



故 김성광 목사

많은 이들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양 교만을 부린다. 그리고는 세상의 것대에 자신을 맞추느라 바쁘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를 등지고 있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말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잘못된 이해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간으로서의 측량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 위대한 기적의 하나님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역사의 경로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우리 민족이 바로 그 증거이다.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다. 숭한 질곡의 세월을 보내며 급기야 형제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까지 겪어야

했던 대한민국.

참으로 비참했던 6·25 전쟁 직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회복 불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것도 부족한 없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 각국의 지원으로 연명하던 원조 대상국 중 유일하게 원조 공여국이 된 우리는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며 경제 대국으로, 대중문화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절망에 갇혀 있던 한 민족이 희망의 증거가 된 놀라운 역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 있는 기적이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과거형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실재이다.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기적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둘째, 광대한 능력의 하나님

영국의 물리학자 보이드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은 약 10만 개 정도이고, 최신 전자 망원경을 가지고 한 은하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2,000억 개 정도라고 한다.

또한 최신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전체 우주 속의 별들의 수는 무려 2,000억x1,000억 개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별들까지 생각하면 우주의 광대함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그러나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는 없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하찮은 두뇌로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값싸게, 적당히, 부족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차마 꿈꿀 수 없는 것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당신이 어떤 큰 문제를 갖

고 있더라도 광대한 능력의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 생긴다면 말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셋째, 귀한 지혜의 하나님

6명의 미국 대통령과 4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미국 최초의 대학이기도 한 하버드 대학교는 “기독교인은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졌던 존 하버드가 사재를 털어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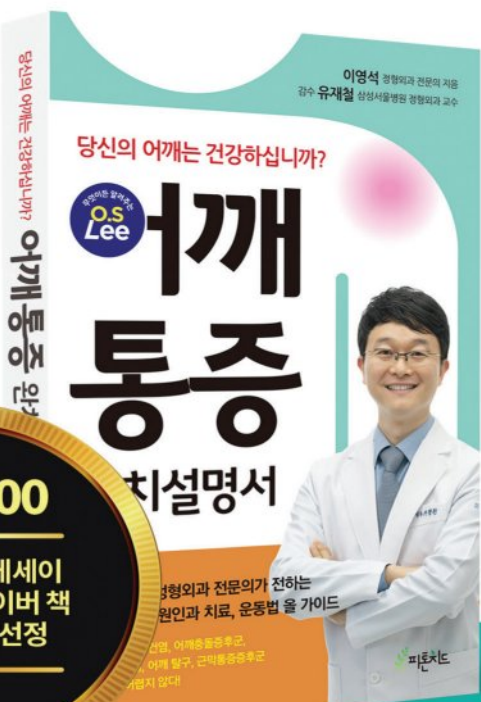
한 기자가 그에게 하버드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이유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명쾌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알게 하겠지요. 오직 주님만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행복의 결핍이 아니라 지혜의 결핍”이라고 했다. 많은 이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지혜는 아무런 힘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그르치게 쉽다. 인간의 얇은 지식을 참된 지혜라 부를 수 없는 이유다.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지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한 지혜를 당신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기적, 큰 능력, 귀한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크기 만큼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라.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의 이름 곧 내가 모욕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조성한 목사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
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
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
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
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
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
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
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
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
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
는 칼이 없었더라 (삼상 17:45-50)

나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여러 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이 인생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마치 위에
인용한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
앗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것처럼 말이다.

머리에는 돛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돛 오천 세겔이며 그
의 다리에는 돛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돛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베
를 채 같고 창 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
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삼상 17:5-7)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 있게 마련이다. 허접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리고 빠져 나갈 길이 없다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말이다. 때로 다른
사람에게는 가벼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너무 무겁기만 한 상황
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위
기인 동시에 기회이고 축복이다. 왜냐면
과연 내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
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 때
문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영원에 빛대어서 자신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인생 전
체를 하나님의 전쟁에 초점을 맞춰 살았
던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다윗은 4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와
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
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홀로 들에서 양
을 치다가 만난 사자와 들짐승들을 물
리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였다. 사실 우리 인생에 당면한 여러 가
지 문제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
다.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관계
의 어려움들,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의 미래 등이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하도

록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라는 아름다운
끈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
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 이
번 주일도 예배를 통해 강력하게 일어서
서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며 우

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 물맷돌을 골라앗의 정
수리를 향해 던질 준비를 하며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
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가노라”라고 선포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이 되기를 기도한다.

◆ 조성한 목사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6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상한 심령과 찬양

시편 51편에 등장하
는 ‘상한 심령’을 흔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의 반성 또는 후
회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
나 다윗이 말하고 있
는 상한 심령이란 인간의 축 처진 심리상
태나 슬픈 마음, 후회와 반성 따위를 이
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
해서 상한 심령은 인간쪽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윤진 전도사

상한 심령이란 언약이 언약과 관계된
인물들에게 준 상처를 통해서만 일어나
는 것입니다. 언약, 즉 영이신 말씀이 육
으로 표상될 때, 육이 겪게 되는 육됨 자
체에서 오는 한계상황을 의미합니다. 언
약이 기피하고 거부해야 마땅한 죄인이
나, 언약의 강권으로 인해 거룩을 드러내
야 하는 도구로서 사용받는 인격체가 겪
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
었으며, 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위인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
님 나라의 왕으로써 율법상 완벽한 인물
이 되길 소원했음에도 모릅니다. 여호와
로 인하여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답게
행동하고 왕답게 거룩한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쌓아
올린 거룩의 효험을 기대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약의 상대방으로 낙점된 이

상 다윗은 다윗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계
약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입장에 서
고 만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다윗언약을 홀로 진행시키고 계
신 여호와와 왕이심을 자신의 육으로 드
러낼 수 밖에 없도록 여호와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그대로 쏟아놓을 수 밖에 없
습니다.

이제 다윗은 간음이라는 행위 뿐만아
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악의 덩어리
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죄는 이미 자신의
모태를 물들이고 있었으며, 자신은 그 죄
악된 모태를 빌려나온 죄인일 뿐입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도 항상 주 앞에서는 죄
일 수 밖에 없으며, 주님께서 어떻게 자
신을 판단하시든지 그것은 항상 의롭고
온전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언약(말씀,
영이) 다윗 자신이 살아있을 자체가 죄임
을 자신의 육과 대조시키면서 계속적으
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을 단순히 인간
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
은 옳지 않습니다. 언약이 왜 홀과 같은
존재인 죄인의 심리상태를 주목해야 합
니까? 그가 왕이던, 황제이던, 그 누구이
던 간에, 그가 아무리 철저한 자기반성을
시도하고 철저하게 깨우쳤다 하더라도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언약의
상태는 오직 언약에 의해서만 정해지며,
그렇게 언약에게 지목받았다는 이유만
으로 그 사람은 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이란 언약의 관
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이렇게 이해할 때, 즉, 영
이신 말씀이 육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것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심
령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육이 그 몸뚱아리로 어
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의 본질은 하나
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 밖에 없는 죄악
의 산물이다라는 ‘버려짐’이 바로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
진 자신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
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거룩만을
고집하시면서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시는
장소가 교회이며, 그 교회 안에서 제물이
되어 제사장에게 죽은 자로 난도질 당하
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의 찬양이란 바로 이 때, 터져나오
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저 버려져
야 하는 것이 백만번, 천만번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우리 머리 위로 쏟아
부어 주셨습니까? 언약이 투사된 사람
이니까요.

이렇듯 상한심령과 찬양은 모두 언약
중심입니다. 인간의 감정표출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언약에 의해 육을 알게 된
상한 심령이 자신의 한계를 뚫고 외부에
서 들어오신 복음의 능력에 매달려 하나
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 때, 인간 쪽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연습하고 노력하고 드
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로 찬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성
도에게 적용될 때마다, 상한 심령과 찬양
은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체가 돌아왔을 때, 다윗이 찬양했
던 모습 역시 언약이, 말씀이 스스로 역
사하는 것을 목격한 것에 관한 기쁨이
다윗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이지, 다윗이라는 인간의 흥겨움에 초점
을 맞추면 안됩니다. 왕이라는 신분과 속
살이 보이는 광경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
니다. 그러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
로잡힌 자와 그 언약이 스스로 적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기쁨은 너무나 잘 어
울립니다. 그가 왕이건 거자이건 언약은
인간의 정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인
간 역시 자신의 모습에는 관심을 둘 형
편이 못됩니다. 속살이 보이는 것조차 모
르고 춤을 추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한 심령이던, 찬양이던 그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말씀이시기 때문
입니다. 이 일을 인간적인 흥겨움과 왕이
라는 체면과의 무게달기로 판단한다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을 저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언약이 투사된 사람
이니까요.

이렇듯 상한심령과 찬양은 모두 언약
중심입니다. 인간의 감정표출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언약에 의해 육을 알게 된
상한 심령이 자신의 한계를 뚫고 외부에
서 들어오신 복음의 능력에 매달려 하나
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 때, 인간 쪽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연습하고 노력하고 드
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찬양이라고
부른 것들과 소위 CCM이라는 하는 것
들을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
이 그렇게 애절하게 전달하고 있는 메세
지(가사)를 단 몇 분만 투자해서 살펴보
시면, 과연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가
버림받고 부인되는’ 그런 상한 심령과 그
것을 홀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
양하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의
심이 드실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는
주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참 유
용한 종신 하나님을 영분하듯이 읊조
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곧 나를 찬

양하는 것이요, 결코 나 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담보
하기 위해, 각종 문화권의 예배형식을 끌
고들어와서, 열린예배, 영성예배, 침묵예
배 등의 이름으로 가장한 거짓예배와 클
래식, 팝, 국악 등 각종 음악으로 치장해
서 찬양이라고 강제로 이름붙여진 거짓
찬양 사이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유일한 예배인 십자가 예배를 묵묵히 드
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그 십자
가의 능력에 사로잡혀 모든 영광을 어린
양께 올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글쓴이: 박윤진

찬양한 도구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님을 보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소진영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CGN, 서부경남 미자립교회 위한 무료 영화 상영회 개최

‘무명의 복음 릴레이’ 캠페인 통해
농어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 희망과 위로 전해

CGN이 최근 진주 롯데시네마에서 서부경남지역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부경남지역 미자립교회 18개 교회에서 183명이 참석, 영화 <무명(無名)>을 관람했다.

이번 상영회는 CGN의 ‘무명의 복음 릴레이’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리산선교동지회와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무명의 복음 릴레이’ 캠페인은 전국의 미자립교회가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프로젝트다.

행사는 찬송과 기도, 영화 및 서부경남지역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지리산선교동지회 이기성 회장(진주초원교회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이기성 회장은 “서부경남지역은 현재 국내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며 “7년 전 같은 장소에서 ‘처사령’ 영화를 관람했을 때 40개 교회 360여명이 참석했지만, 지금은 많은 농어촌 교회가 사라지고 고령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CGN이 진주까지 내려와 상영회를 열어준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CGN 함태경 경영본부장도 축사를 통해 “영화



CGN이 최근 진주 롯데시네마에서 서부경남지역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다 ©CGN

<무명(無名)>은 한일 양국의 역사적 연대를 넘어, 선교의 가교가 되는 중요한 콘텐츠”라며 “오늘 상영회가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 상영 중, 농어촌 지역의 목회자들 사이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특히 영화 속에서 오다 나라지 선교사가 “일본국적, 조선국적은 과거의 역사가 만든 경계선일 뿐, 우리는 모두 천국 국적을 가진 존재”라고 외치는 장면에서는 참석자들이 아멘을 외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석주 지리산선교동지회 초대회장(남사교회 은퇴목사)은 영화를 본 후 “일본인 선교사와 초

창기 지역 목회자들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었다”며 “40년 전, 서울의 큰 교회 목회를 포기하고 지리산으로 내려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선교사들의 희생정신 덕분에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서부경남 지역에도 다시 한 번 부흥의 열기가 차오르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남사교회 김영범 목사도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세속적인 비전을 좇는 이 시대에, 이 영화가 다음 세대가 새로운 소명과 선교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며 “더 많은 지역 교회들이 영화 <무명(無名)>을 관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한동대, 미네르바대학과 협력해 국제 AI 영화제서 성과

‘AI 문화예술 프로젝트’ 수업,
발리AI영화제 공식 선정작 배출...
혁신적 교육 모델 입증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미네르바대학과의 혁신적 교육 협력을 통해 국제 AI 영화제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동대가 글로벌대학 30에 선정된 이후 빠르게 추진한 교육 혁신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은 사례로, 학내 교육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한동대는 미네르바 프로젝트와 공동으로 비판적 사고, 소통, 협업, 창의성 등 4C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AI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교육학개론’ 등의 신규 교과목을 추가하여 교육의 폭을 확장했다.

특히 ‘AI 문화예술 프로젝트’ 수업은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AI 툴을 활용해 창작물

을 직접 제작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수업을 담당하는 심규진 교수는 윤성민(19학번,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과 이로운(22학번,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과 함께 ‘The Secret of behind K-Gimbap(한국 김밥의 비밀)’이라는 작품을 제작, 발리AI영화제(AI FILM AWARDS BALI)에 출품했다.

이 작품은 심 교수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두 학생이 다양한 AI 툴의 프롬프팅 기법을 활용해 영상을 완성한 결과, 발리AI영화제 공식 선정작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리AI영화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평가하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영화제로, 이번 선정은 AI로 제작된 콘텐츠가 예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심규진 교수는 “미네르바식 교육 방식을 적용하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공모전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한동대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문 글로벌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동대는 이번 성과를 통해 혁신적 교육 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지동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사신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25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생방송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산정현강단(김관선)(980회) 30 TV강단 세한(주진)	10 선교는 지금(53회) 다예교회 이순근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지호 목사(대구범어교회) 30 생명의 말씀-김형준 목사(동안교회)	20 할렐루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윤길중 목사(영동포교회) 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0 생명의 양식 서산성결(김형배) 30 한소망 말씀 (최봉규)(143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54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 5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기쁨교회)	10 조정민 목사의 담담담 20 사랑의 메시지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 50 비전설교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	30 휴먼네트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482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6회)	00 새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황덕영 목사
	8:00	20 원더풀우먼	20 신의 2수 30 체인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00 하나님의 음성(75회)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380회) 민수기 8강	00 복음강단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정은 목사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30 행복한 쉼터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	0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심소)2	10 새롭게하소서(11028회) 김강 대표	00 글로벌 신앙토크쇼 왓츠업(36회) 현금 낼 때마다 생각이 많아져요 4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34회)
	10:00	0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20 무빙 인 그레이스 50 다음세대 물품, 한국교회가 한다	00 2025 다니엘 기도회	20 크리스천 슈퍼맘 50 너답게-회복프로젝트	00 CBS NEWS 1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309회) 40 목사님 궁금해요(129회)	00 성경 속 전쟁사(16회) 사사시대 최후의 내전 : 베냐민의 몰락 30 성자가 좋다(503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4부
	11:00	0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에 50 바이블 프로젝트	00 사랑의 메시지 전주완산교회 유병근 목사 30 사랑의 메시지 남서물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1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50 예수동행일기	00 율포원(682회)	00 소문난 성경교실(577회) 오택현 교수 세 번째 15강 바울관에서 말씀 발굴하다 : 라임셋 2세 미이라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0회) 50 말씀의 창 포항동부교회 김연걸 목사
오후	12:00	00 CTS 뉴스 20 신앙예세이 30 생명의 말씀-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30 행복한 쉼터 316교회 박용배 목사	1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TV강단 오병이어(권영구) 30 오직예수 (이영훈)(913회)	20 복음강단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비전메시지 바른교회 조정현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김성곤 목사(풍성한교회) 30 [CTS 30년 믿음의 땅] 내 영혼의 찬양	00 사랑의 메시지 안양생명나무교회 손명숙 목사 3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교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2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24회)	30 강연쇼 통(34회) 나는 느린 사람입니다
	14:00	00 [생방송] 콜링캣 50 지금, 선교해YOU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00 말씀의 힘 우면동(정준경) 30 새롭게하소서(11358회) 김기중 목사	20 믿음의 리액션(3회) 경기도 평택
	15:00	4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에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특집 다큐멘터리] 땅 끝의 증인들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378회) 마태복음 3강	00 수영로교회 새물결 새바람 NEW WAVE 이규현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00 행복한 쉼터 소성교회 강복렬 목사 30 행복한 쉼터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오히려복음 강해 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50 [말씀] 김형익 목사(뽕살롱교회)	10 맨투맨 처치2(6회)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56회) 50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 스페셜(6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31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생명의 말씀-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신의 2수 10 김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진 부흥회 4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933회) 50 영혼의 양식 수원제일(박성영)	00 말씀의 창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 30 TV찬양예배	10 비전설교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 40 더 깊은 울림 마커스 워십	10 2025 회복축제 (온전함) 50 2025 KOSTA WORLD IN IRVINE	00 TV/강단 성남빛나(사학박) 30 산위의마를 예배 (김영준)(262회)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30 말씀의 창 엘드림교회 임병재 목사
저녁	19:00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다니엘기도회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50 2025 KOSTA WORLD IN IRVINE	20 만나다(26회) 30 TV강단 (예장백석)	00 비전메시지 광주새성안교회 김시은 목사 30 스페셜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400회) 김하나 목사
	20: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30 생명의 말씀-장찬형 목사(강남중앙교회)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00 너답게-회복프로젝트 20 THE NEW 하늘빛항기	00 성령의 시대(14회) 50 CBS 교회소식(1023회)	10 비전메시지 기쁨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21:00	00 원더풀우먼 50 CTS 뉴스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00 갈보리교회의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4380회) 민수기 8강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71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40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00 GOODTV 뉴스 20 GOODTV 시네마 미라클 프롬 해븐 1부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 패밀리	00 CBS NEWS 10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2회)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59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74회) 오택현 교수 세 번째 12강 바울관에서 말씀 발굴하다 : 실로암 석비 50 리바이즈 워십
	23:00	10 구지역 목사의 트롯찬양교실 40 오마이갓싱	2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38회) 30 하나님의 음성(76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6회)	00 믿음의 리액션(3회) 경기도 평택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24:00	00 콜링캣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더 깊은 울림 한성 워십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THE NEW 하늘빛항기	10 새롭게하소서(11028회) 김강 대표	00 강연쇼 통(34회) 나는 느린 사람입니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00	00 무빙 인 그레이스 김상인 목사 30 이영훈목사의 할렐루스토리 40 CTS 30년 믿음의 땅작 CTS특집다큐 여전도회 120년사 특집 다큐 2부 - 어머니 세계를 품다	10 조용기 목사, 명설교	0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0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25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555회)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트(27회) 복음과 세상 종교 차이 30 성자가 좋다(503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4부
	2:00	30 백세특강 시즌3 박호근 목사 4강	1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30 TV강단 강남중앙침례(최병락)	00 THE 궁금(36회) 천사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불)(114회)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요한계시록 8강 송태근 목사 50 위대한 발견들	10 GOODTV 특별간중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율포원(681회)	00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박중순 목사 30 내 영혼의 찬양	0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10 생명양식 데일리큐티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염광교회)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4379회) 기록과 신앙, 그 깊이와 넓이 15강 50 CBS 교회소식(1023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20회) 김선도 목사 30 성자가 좋다(503회)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Euler's equation
Euler's equation
SK Innovation

[에너지의 무한공식]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에스온